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익산시 코로나 확산차단 총력

내년 말까지 1년간... 고용위기 출구전략 추진 성과 기업·노동자·구직자 전방위 정부 지원사업 계속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시는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상용차, 화물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가 깊어졌다.

특히 올해 주요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으며, 주력산업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민의 상실감 해소와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수개월간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 및 전북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군산시의회에서는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민정안건으로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연장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를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24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17개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유지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은 기업과 노동자, 구직자에게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 19로 더 한층 어려워진 우리시의 고용환경에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라며 "시는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경로당 폐쇄,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로당을 폐쇄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김제지역 요양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말까지 감염취약시설인 지역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112곳, 의료인과 간병인 등 종사자 4,3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다 강도 높은 방역 차단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전체 경로당,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일부만 운영했던 각 도서관 열람실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선제적으로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어 고위험군 위험시설인 지역 경로당 774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한편 이날 익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126명이 됐다.

15일 밤 양성 판정을 받은 126번(전북 588번) 확진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어르신으로 격리병실 입원 대기 중 사망했다.

126번(전북 588번)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자녀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14일 병원 치료를 위해 익산병원을 방문하던 중 발열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5일 밤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 가족과 접촉자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확진자들의 핸드폰과 GPS, 카드소유내역 등 추가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군산시, 토지보상 본격화

군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 추진하며 체계적인 도로교통망 구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대한 재정확충 불부명 및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불요불급한 도로는 폐지하고, 존치된 33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본격적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보상에 따른 총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내년부터 연차별로 50억을 기점으로 적극 보상협의를 통해 2025년 내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은파순환도로 확장공사 등 5개소에 대한 토지보상 추진에 따라 토지분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내년 상반기 신축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금강미래체육관 기행운동 실천 앞장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미래체육관(구 금강철재조방대)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기후행동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행동은 저탄소생활을 실천하는 일상 속 작은 행동의 변화로도 할 수 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비닐봉지를 에코백으로 바꾸는 것,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기후행동이다.

그동안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남용했던 생활에 비하면 조금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구를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곧 익숙해질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배달의 명수 만족도 참여하고 할인쿠폰 받자"

2021년 앱 운영에 반영키로

소상공인들의 호사 노릇을 한 배달의 명수가 앱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0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는 지난 3월 13일 출시 이후 9개월간 시민들의 앱 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앱 운영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며, 앱 서버

스 만족도 등 총 13개의 설문으로 구성됐다. 참여방법은 '배달의 명수' 앱 팝업창을 클릭해 참여 가능하며 설문에 응해 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00명에게 할인쿠폰 5,000원을 지급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상생어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 명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달앱으로 최근 음식뿐만 아니라 꽃집, 떡집, 정육점 등 카테고리도 확대해 다양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출시 이후 12월 14일까지 28만건 주문, 6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배달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을 도모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인건비와 운영비 1억4,35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년 연속 선정

익산시가 육아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인건비와 운영비 1억 4,35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놀이교실' 프로그램이 본격 진행된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농촌 지역의 영유아 가족들을 위해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 주고 전문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정의 장난감과 도서 구입 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도움과 지리적 제한으로 놀이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웠던 영유아 가족들의 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이동식 놀이교실은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지난 10월 공모계획 발표 후 전국의 지자체에서 신청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재학생 의사소통 역량강화 학습공모전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재학생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습공모전을 진행하고, 최우수상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라떼는 말이야(비대면 수업 내면의 학습노하우 대방출)'를 주제로 열린 2학기 공모전은 한 학기 동안의 우수한 학습경험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 및 학습전략 보급을 위해 진행됐다.

공모전은 지난 7일 심사를 거쳐 조나현(한의학과 분과 3년) 학생의 '노트북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그 밖에도 우수상 1명과 장려상 2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노트북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시간표 만들기, 둘째 50% 달성을 목표로 하루 계획 세우기, 셋째 한글프로그램을 활용해 완벽한 강의노트 작성하기, 넷째 대학에

서 무료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 활용하기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사례를 제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조나현 학생은 "비대면 수업에서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자신만의 스마트 공부법을 공유해 코로나19로 비슷한 고충을 겪는 학우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었다"며 "스마트 학습법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깊게 집중하게 되므로 주기적인 눈 운동도 꼭 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